

SK, 최태원 회장 없이 어디로...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 소버린이 나서 경영진 교체도 가능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6월13일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재계 3위인 SK그룹의 경영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그룹 계열사 지분 전량을 SK글로벌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 C&C의 주식 44.5%를 보유하고 있어 SK그룹의 실질적 오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SK C&C 주식 외에도 SK 0.11%, SKC 7.5%, SK케미칼 6.84%, SK글로벌 3.31% 등 상장기업 지분과 워커히호텔 40% 등 비상장사 지분을 통해 SK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해 SK그룹에 당장 어떤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불안정하긴 하지만 SK그룹은 이미 3개월 이상을 최태원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손길승 회장과 조정남 SK 텔레콤 부회장, 황두열 SK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들이 중심이 된 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심 재판이나 보석 등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출감하기 전까지는 불안정하나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 강화를 통해 SK글로벌의 정상화와 정상적인 사업전개를 도모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구속 직후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의 대주주로 올라선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공백으로 인한 경영권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버린자산운용을 포함해 SK글로벌에 대한 계열사 지원을 반대하는 외국계 주주와 소액주주연합회, 참여연대, 노동조합 등이 SK그룹 경영권 향배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SK의 14.99%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만 해도 SK 경영진이 못미더워지면 템플턴자산운용이나 헤르메스자산운용 등 비슷한 성향을 가진 외국계 주주 및 뜻을 같이 하는 소액주주들과 손을 잡고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권거래법상 1.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항 때문에 당장은 소버린자산운용이 주총 소집을 통한 이사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지만 8월 말 이후에는 가능해진다.

또 템플턴자산운용 등 SK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온 다른 주주와 연대한다면 당장이라도 이사진 교체를 통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

채권단 공동관리 상태인 SK글로벌은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채권단이 경영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진 교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6월15일로 예정된 SK 이사회도 중요한 변수이다.

만약 SK 이사회가 SK글로벌에 대한 출자전환안을 거부하면 채권단은 SK글로벌을 청산형 법정관리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SK글로벌이 청산되면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최태원 회장의 지분도 처분돼 SK그룹은 사실상 해체된다.

<Chemical Journal 2003/06/16>